

2026. 08. 02 주일 예배 · 요한복음 5:20-47

## 하나님을 독대하라

본문 · 요한복음 5:20-47

지난 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때로는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엄마야!** 하며 엄마를 찾듯, 탕자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 1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으려면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몸으로, 물리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반사신경처럼 자동으로 주님을 찾는 구조로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보았던 변화준비도, 곧 변화중요성과 변화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 다 있어도 올바른 방향설정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고립과 자각**입니다. 우리 더블유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단계를 겪을 필요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 2 고립과 자각 — 아버지께 돌아가는 두 과정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복의 영향력 밖에 고립되는 과정과, 동시에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는 자각의 과정을 함께 겪었기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단계는 우리 인생의 복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치만 알고 고립되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버지를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치를 알았기에 유산을 받아 떠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고립만 겪고 가치를 자각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제 힘으로 수많은 길을 걸으며 악순환만 반복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니까 고립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겠지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며 관성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변화의 열매는 원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희생과 값 지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먹고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하실 겁니다.

탕자도 할 일이 전혀 없는 무직이 아니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만큼은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일이 만족감이 아니라 모욕감으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복의 영향권 밖에 완전히 고립되고서야 그는 아버지의 가치를 자각했습니다. 분리됨을 통해 아버지께서 바로 복의 원천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복의 원천이심을 깨달으려면 그 원천으로부터 차단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분리됨의 강도가 강할수록,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꼬여봐야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를 자각하고 돌아옵니다.

수련회를 2주 앞두고 언플러킹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다 열면 수압이 낮아지고, 다 잠그고 한 군데만 열어야 수압이 높아집니다. 조금이라도 안식 비슷한 것을 주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에 스며든 MSG를 빼내고 오직 말씀으로만 채우십시오.

밤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달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산에서 해가 저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칙흑같은 밤을 만나면, 그때 뜬 보름달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고립되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봐야 그분께만 매달립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가치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뿐입니다.

### 3 고립은 버림이 아니라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린 결정이었었는데 왜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다가 억울하게 태형을 맞고 갇혔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께 순종한 대가가 노예로 팔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갇힌 요셉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이라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송하다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하지 않았고, 그 일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

## 4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 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그림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적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깨닫는 그 감격을 대체할 공적예배는 없습니다.

그 연예인을 잘 아는 박사님의 설명을 들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직접 만나는 것 자체의 감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 원리를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 비밀도 깨닫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 훨씬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데닉 워크샵 때 목상하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 제가 한 사람씩 코칭하지 않고 성도들이 직접 독대하도록 묵화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부모가 설교자가 되게 하려는 이유가 다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매일 그 감격에 젖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더블유교회는 영적 거장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장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깊이 만나면 그 외에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도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 결론 — 오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가장 은혜롭고 감격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감격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를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심으로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더블유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Q1

[말씀 듣기 전] 나의 삶 돌아보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까? 요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거나 무기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Q2

[말씀을 통한 깨달음] 나의 상태와 그 말씀

오늘 말씀 중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상태는 무엇이며, 나는 **고립과 자각** 중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 Q3

[말씀 받은 후] 묵상과 적용 나누기

요한복음 5장 20~47절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의 적용을 나눠주세요.

##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